

# 전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실시

전남도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오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상반기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7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올해는 중앙정부 공모에서 3곳, 전남도에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했다. 오는 17일에는 시군 공무원과 관

오는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총 8곳 선정

내일 공무원·공공기관 참여 실무 토론회

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토론회를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열고, 생활 SOC반영과 역사, 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 요령 등을 토론했다.

또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온 전남도 도시재생지원협의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디자인전문가, 시군 도시재생센터장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까지 전남지역 8개 시군 13곳에서 225억원 규모가 선정됐다. 주차장 및 도

로정비,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청년창업 공간 조성,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공모는 6월 이후 실시한다.

전남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공모에 다수가 참여해 선정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도가 선정하는 사업이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제1회 섬의 날’ 행사 유치 전남도 차별화된 행사 시동

콘텐츠 개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기념일인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8월8일 전남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남도가 콘텐츠 개발 등 차별화된 행사를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나서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의 날' 행사 개최의 구체적 장소를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시군 전문가 등으로 TF 팀을 구성해 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섬의 날 행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 페스티벌 기술감독과 2014안도국제해조류엑스포 전시 연출디자이너, 한일월드컵FIFA공식 전야제 구성, 연출 등을 맡았던 안치운 감독과 강재운 섬연구소장, 섬발전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섬의 날 행사 콘텐츠 개발과 발전 방안 논의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섬의 날' 기념식이 지역발전전을 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성 역할을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오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도시발전연구회, 경남도와 함께 '국립 섬 발전연구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

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섬 발전 연구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지방정원연구원 이재연 소장)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의 정책방향과 과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 역시 섬의 날 유치와 함께, 섬 발전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불 조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전남도는 현재 '국립 섬 발전 연구지원센터'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을 통해 전남 도내에 섬 발전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유치를 위한 논의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부산에 열린 제1회 바다의 날 행사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해양부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남에 유치한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에도 대통령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차별화된 섬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진식 문화전당장 직무대리가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亞문화전당 '성과가 눈에 보이는 해'

관람객 280만명 목표 10대 핵심과제 추진

개발 중인 '렉스(REX)'를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 부인전을 모티브로 제작되고 있는 작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액션 판타지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컴퓨터그래픽과 입체영상, 전통기에, 동양무술, 서커스 등 복합기술이 결합된다.

이를 위해 문화전당은 극장비를 국내 최초 일체형 무대로 개발하고 있다. 작품은 오는 4월 쇼케이스를 연 뒤 12월부터 상설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태권도, 판소리 등 전통이 어우러진 공연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소재로 한 공연도 개발된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기에 맞춰 무대에 올려질 대형 작품도 올해 5월 시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은 문화예술창·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전당은 현재 킬러콘텐츠로

개발 중인 '렉스(REX)'를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 부인전을 모티브로 제작되고 있는 작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액션 판타지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컴퓨터그래픽과 입체영상, 전통기에, 동양무술, 서커스 등 복합기술이 결합된다.

이를 위해 문화전당은 극장비를 국내 최초 일체형 무대로 개발하고 있다. 작품은 오는 4월 쇼케이스를 연 뒤 12월부터 상설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태권도, 판소리 등 전통이 어우러진 공연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소재로 한 공연도 개발된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기에 맞춰 무대에 올려질 대형 작품도 올해 5월 시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은 문화예술창·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조인호 기자

## 동구, 예술의거리 조각품 이설·재배치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금남로 인도에 설치된 조각품 20점 중 18점이 예술의 거리로 이전됐다. 이후 작품 간격이 1미터 내외이고 뒷면은 감상할 수 없는 획일적 배치에 대한 문제제기와 차량통행 불편, 시민 보행환경 저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는 2017년 2월부터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해 이설계획을 검토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이설계획을 수립했다. 동구는 15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일부 조각품 이설·재배치를 최종 결정했다.

## 서구, '음쓰? 음쓰!' 캠페인 전개

광주 서구가 '음쓰? 음쓰! SNS 인증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음쓰? 음쓰!'란 '음식물쓰레기 없다'는 뜻의 줄임말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는 광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발맞춰 기획된 캠페인으로, 기존의 관주도형 홍보방식과는 차별화된 주민주도형 참여방식이다.

주민 누구나 서구 관내 음식점이나 집합급식소(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전, 잔반 없이 다 먹은 후 사진을 각각 촬영하여 먹은 장소와 해시태그(#음쓰음쓰 + #광주서구)를 함께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 남구, 의료기관 특수·일반 구급차 26대 점검

광주 남구는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의료기관 구급차 지도 점검이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26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수 구급차 4대와 일반 구급차 22대 등 총 26대이다.

특수 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며, 일반 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데 구급차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및 의약품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남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및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구급 의약품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위한 현장방문

문인 북구청장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15일 관내 청년센터(청년센터 아카이브)를 찾아 지역의 청년단체 관계자, 청년활동가, 대학생 등을 만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북구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북구는 청년 자립 지원, 청년 행정 참여, 취업·창업 지원, 청년 활동 기반조성 등 4대 분야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 광산구 첨단2동, 새해 소원나무·포토존 설치

14일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자치회(회장 김도훈)가 첨단2터워 앞 만남의 광장에 소원나무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주민 누구나 새해 비랍과 희망을 적어 매달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주민과 함께 새해를 맞고 서로 신년인사를 건넬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소원나무는, 정월 대보름 전까지 한 달간 지금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맞는다.

이 기간 동안 주민이 적어낸 비랍들은 이후 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불에 살라질 예정이다.

이날 설치된 소원나무와 포토존 조형물은 첨단2동 주민자치회 이철원·정용주 위원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임형택 기자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본 회사는 2019년 01월 14일 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분은 2019년 03월 2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01월 16일

유한회사 비앤비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2길 8 (신기동)  
청산인 양광천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중앙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